

# 해남 우수영 마을 예술촌으로 재탄생

마을미술 공모사업에 선정  
동헌·태평정 조형물 설치  
목공예공방·대장간도 조성

조선시대 500여년간 전라도 서남해 방어를 담당했던 수군기지가 자리했던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右水營) 일원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소통하는 예술도시로 탈바꿈된다.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15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 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한 군은 지방비 3억원을 포함해 5억5000만원을 들여 선두리와 동외리, 서상리 등 영내 마을 10곳을 대상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우수영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크게 ▲대지미술 테마로 우수영성 조형작업 ▲성문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벽화제작 ▲방치된 우수영 전통 저자거리 점포를 향토음식점·문화관광상품

제작·판매점으로 변화 ▲문화예술교육·체험·창작공간 만들기 ▲강강술래 유래·역사담은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판옥선 제작 조선소 터에 목공예 공방과 대장간 유지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성벽과 동헌(東軒), 태평정의 흔적을 찾아내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현존하는 망해루와 방죽섬은 포도 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랫동안 방치된 우수영 전통 저자거리의 점포는 향토음식점과 문화관광상품 제작 판매점으로 되살리고, 판옥선 옛 면사무소와 강강술래 기념관은 문화예술의 교육과 체험, 창작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다양한 예술 전문가가 참여해 역사성을 담아내는 각종 조형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할 감독 선정과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 작품 제작과 설치를 계획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라우수영 성지(城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강강술래, 명랑대첩 축제 등 문화적 요소를 잘 융합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군진 민속촌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국제적인 희귀조인 흑두리(천연기념물 제228호) 500여 마리가 최근 해남군 마산면 당두리 간척지내 뜯섬에서 발견됐다. 해남군은 일본이나 순천만 일대에서 월동한 흑두리 개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해남 뜯섬에 흑두루미 떴다

500여마리 찾아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해남군 마산면 당두리 간척지 뜯섬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뜯섬 뜯섬에서 흑두루미가 첫 관찰 돼 현재 500여 개체에 이르고 있다.

군은 해남지역에서 발견되는 흑두루미는 12월에 월동을 시작한 후 이듬해 3

월 말에 러시아나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이번에 마산면 뜯섬에서 발견된 흑두루미는 이날 중순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이나 순천만 일대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 개체일 것으로 추정했다.

박중삼 야생 조수보호 고정감시원은 “500여마리 규모의 흑두루미가 갑작스럽게 해남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흑두루미떼가 마산면 뜯섬 지역

을 찾은 것은 고천암호 등 다른 지역은 이미 농사 준비작업이 시작됐지만 마산면 뜯섬 지역은 농사시기 외에 농기계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철새 관찰을 위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야생 조수보호 고정감시원을 두고 고천암호와 금호호, 영암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완도 수산벤처대학 수산교육 산실 자리매김

7·8기 졸업식, 9기 입학식

완도군 ‘수산벤처대학’이 전국 수산인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19일 신지면 조산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한국 수산벤처대학’ 제7·8기 수료식과 제9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과 입학식은 대학운영 관련 기관장과 각급기관 단체장, 수료생 입학생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군수는 축사에서 졸업생과 신입생들에게 “수산 벤처대학에서 배운 많은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선봉

역할을 해줄 것”과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료식 후 해양수산부 소속복지과 양근석 과장이 ‘2015년 수산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고 교육생들과 열린 토론을 벌였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수산인의 관심이 더해가고 있는 한국 수산 벤처대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습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진도 동학지도자 유골 전주 안장 안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봉환 운동 나서

진도군민들이 전주에 안장 예정인 동학지도자 유골봉환 운동에 나섰다.

진도군의회와 진도향교, 진도문화원 등 8개 기관·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진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동학지도자의 유골을 고향인 진도로 봉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진도 동학지도자 유골이 전주에 안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한 부당한 처사다”면서 “진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 대한 정확한 고증 연구 등을 위해서는 유골이 고향으로 봉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들과 더불어 진도 동학지도자가 안식할 수 있는 안장과 보존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동학지도자 유골을 봉환받아 진도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과 전시관 조성을 위

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동학농민 정신을 대중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골은 지난 1906년 진도 면화재 배 관리자인 사토마사지가 채집해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90년만인 1995년 7월 홋카이도 대학 창고에 방치된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골에는 ‘1906년 9월 20일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首級)’이란 글이 적혀 있어 진도 출신 동학지도자로 파악됐다.

유골은 1996년 한국으로 봉환됐지만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다시 20여년간 보관됐다. 정읍시가 지난해 12월 유골을 황도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하고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부결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유골을 다음달 16일 전주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 해남군 여성이장 29명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

해남군이 여성이장을 ‘1일 명예 실·과장제’를 운영한다.

‘1일 명예 실·과장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명예 읍·면장제’를 확대한 것이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1일 명예 실·과장제’의 날로 지정해 군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이장 29명을 매월 3~4명씩 1일 명예 실·과장으로 임명해 군정체행 기회를 제공하

고 참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이장은 군수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은 후 실·과에 배치돼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근무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8일에 여성이장 4명이 기획홍보실과 주민복지과, 진환경농산과, 종합민원과의 명예 실·과장으로 임명돼 업무에 참여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완도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입학식·학부모 연찬회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유권철)은 지난 19일 완도 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학부모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입학식은 2015학년도 선발전형에 합격한 학생 46명(초5 16명, 초6 16명, 중1 14명)을 대상으로 입학허가와 학생대표 선서, 지도교사 소개와 교육장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하교 후에 과학, 수학, 영어, 독서·토론수업 등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융합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우주과학 체험학습, KAIST 과학관 탐방, 목포대 ‘F1 인스쿨(in School)’ 참가 등 위주로 운영된다.

유권철 교육장은 “지역 영재학생들이 잠재능력을 계발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영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상무 Biz Tower

#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점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 비즈니스호텔 W

# 광주 상륙!!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0대 확보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9㎡)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9㎡)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9㎡)	비즈니스 호텔
5층 (1209㎡)	비즈니스 호텔
4층 (1209㎡)	비즈니스 호텔
3층 (1209㎡)	비즈니스 호텔
2층 (1209㎡)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509㎡)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맛사지샵, 한의원, 판매시설, 침차전문점
지하1층 (2709㎡)	스포츠맛사지, 유희/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0㎡)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